

# 중국 北朝 시기 家屋形 石葬具의 建築意匠 연구

서운경

## I. 머리말

중국 北朝 시기 고분에서 출토된 葬具 가운데, ‘家屋形 石葬具’는 목조 건축의 架構 형식을 갖춘 석재 장구라는 특수한 형태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로 동 시기에 출토된 石棺, 石棺床, 石屏風, 墓誌銘 및 각종 喪葬器物 등과 함께 다뤄졌으며, 장구 상에 표현된 도상과 명문을 통해 북조 시기 다양한 민족의 생활상, 문화교류, 종교신앙 및 祭儀를 읽어내는 연구가 활발히 개선되었다.<sup>2</sup>

徐潤慶

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역사학 박사  
고고미술사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5923)

\*\* 필자의 최근 논저: 「중국 北朝 시기 儀仗出行의 재현과 祭儀」, 『미술사논단』39, 2014. 12; 「북위의 제천 의례와 제사건축: 평성기 교사와 명당의 구조와 상징」, 『(김홍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11; 「북위 平城期 沙嶺벽화고분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67, 2010. 9.

1 ‘葬具’는 고분 내에 遺體를 포함하여 부장된 器物을 가리키지만, 본고에서는 유체를 안치하는 棺, 槨으로 대표되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家屋形 石葬具’는 石室, 石堂, 殿堂形·房形·房屋形 石棺 또는 石槨으로 일컬어져 용어상의 혼동이 있으나, 대개 석조로 건축되었으며 집 모양의 형태에 장구의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을 ‘가옥형 석장구’로 명칭한다.

2 북조 晚期에서 隋·唐代에 집중된 석장구의 주인은 북방 민족과 소그드 계통의 서역계 민족이 대부분이어서, 중앙아시아 관련학계를 비롯한 역사학·종교학·고고학·미술사학계의 주목을 받아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구상에 표현된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및 상징제되는 그들이 남긴 문서자료와 함께 당시 역사상을 再構하는 일차적인 자료로 다루어졌다. 『法國漢學』叢書編輯委員會 編, 『粟特人在中國』(中華書局, 2005); 榮新江·羅豐 主編, 『粟特人在中國—考古發見與出土文獻的新印證』上·下(科學出版社, 2016)가 대표적이다. 또한 巫鴻 主編,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文物出版社, 2001); 賀西林, 『北朝畫像石葬具的發見與研究』, 巫鴻 主編, 『漢唐之間視覺文化與物質文化』(文物出版社, 2003), pp.341-376; 榮新江·張志清 主編, 『從撒馬爾干到長安——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蹟』(北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연원 문제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건축 구조의 특징을 살펴 漢代 쓰촨(四川)에서 출토된 房形 石棺을 원형으로 하여 동한 말기 天師道 또는 五斗米道 등 早期 道教를 매개로 전파되었다는 설,<sup>3</sup> 한대 이래의 祠堂건축에서 변형되어 고분의 기능과 葬法의 변화에 따라 묘실 안에 안치된 것으로 보는 설<sup>4</sup>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주인은 증원에 정착한 북방 민족과 당시 동서교류의 중심에 섰던 소그드(Sogd) 계통의 서역계 민족도 있어 다문화 상호간에 이루어진 학습의 산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는 고분의 전체적인 구조와 부장품이 기타 북조의 일반 고분과 유사함을 들어 異國의 상장문화가 중국에서 융합·정착된 것으로 보거나,<sup>5</sup> 서역의 葬法에서 사용한 骨壺나 고분군을 비교하고 그들의 葬祭가 중국에서 새롭게 변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대표적이다.<sup>6</sup>

이상의 다양한 논의는 본 연구 대상이 가진 연구의 한계를 시사한다.<sup>7</sup> 그러나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는 고분 안에 실제적인 가옥 형태의 건축을 建造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지 않은 북조 건축의 구조 원리를 그대로 전하며, 특히 建築意匠에는 당시 상장문화의 실상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요소가 내재하여 연구의 의미가 있다.<sup>8</sup> 본고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가옥형 석장구의 유형과 구조를 살피고, 고분의 건축환경과 관곽제도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본 연구대상의 연원 문제에 접근해 본다. 당시 건축술의 발전양상과 전문적인 作坊의 역할을 살피고, 건축의장을

京圖書館出版社, 2004); 박한제,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한국고대사연구』75(2014), pp. 5-59; 서윤경, 「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 北朝시기 서역민족의 石葬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24(2007), pp.97-127 참조.

3 Wu Hung, "A Case of Cultural Interaction: House-shaped Sarcophagi of the Northern Dynasties" *Oriental Art* (May 2002), pp.34-41.

4 鄭岩, 「青州北齊畫像石與入華粟特人美術——虞弘墓等考古新發現의 啓示」, 巫鴻 主編, 앞의 책(2001), pp.73-109.

5 楊泓, 「北朝至隋唐從西域來華人士墓葬概說」, 『華學』8(2006), pp.218-232.

6 姜伯勤, 「中國祇教藝術史研究」(三聯書店, 2004); 張慶捷, 「虞弘墓石槨圖像中的波斯因素」, 葉奕良 編, 『伊朗學在中國論文集』3(北京大學出版社, 2003); 민병훈, 「문화융합과 변용의 장, 중앙아시아: 외래종교의 수용과 습합」,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APRC), 『상생과 소통의 유라시아』(2014. 6), 프로시딩, pp.13-25 등이 대표적이다.

7 북조 시기 중국 내에서 발견된 서역계 민족의 고분 및 석장구의 연구에서, 당시 비견될 만한 서역 본토에서의 문헌 및 유물자료의 부재는 관련 연구에 한계를 가져온다. 이에 관해서는 서윤경, 앞의 글(2007), pp.97-127 참조.

8 고구려 벽화고분의 도상 가운데 건축적 요소와 도상의 연구를 통해 묘실의 환경에 주목한 연구는 박아림, 「고구려 벽화고분의 帷帳의 설치와 기능」, 『고구려 발해 연구』44(2012), pp.137-167 참조.

분석하여 고분 주인과 葬俗의 연관관계를 구성해 본다. 이로써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상징적 의미와 喪葬祭儀를 추론하고자 한다.

## II.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유형 및 구조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는 대개 목조 건축 架構를 모방하여 중국 전통의 殿堂式 또는 房形의 건축 구조를 따른다. 주로 석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실제 건축을 재현했으며, 건축의장은 장구라는 기능상의 용도에 맞춰 僻事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시에, 묘주상과 생활상, 종교와 신앙, 葬俗 등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는 총 8점으로,<sup>9</sup> 北魏 太安 3년(457) 尉遲定州墓 석곽,<sup>10</sup> 북위 和平 원년(460) 張智朗墓 석곽,<sup>11</sup> 북위 太和 원년(477) 宋昭祖墓 석곽,<sup>12</sup> 북위 太和 연간으로 추정되는 智家堡 출토의 석곽,<sup>13</sup> 북위 孝昌 3년(527) 寧懋石室,<sup>14</sup> 北周 大象 2년(580) 史君墓 石堂,<sup>15</sup> 隋 開皇 12년(592) 虞弘墓 석곽,<sup>16</sup> 2012년 중국 國家文物局이 기증받은 北朝 석곽 등<sup>17</sup>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北齊 河清 원년(562) 庫狄廻洛墓 출토의 木材片은 당시 가옥형 목곽의 일부로서 판단된다.<sup>18</sup> 다음 <표1>은 이상의 북조 시기 가옥형 장구가 출토된 고분과 석장구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9 박아림은 북위 太和 元年(477)부터 隋 開皇 12년(592)의 115년 사이에 제작된 家形石槨 5점에 관하여 다른 바 있다. 박아림, 위의 글(2012), pp.156-159. 본고에서는 이후에 발표된 가옥형 석장구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유형과 구조 및 특징을 살핀다.

10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陽高北魏尉遲定州墓發掘簡報」, 『文物』12(2011), pp.4-12, p.51.

11 劉俊喜, 「北魏毛德祖妻張智朗石槨銘刻」, 『中國書法』252(2014), pp.120-122.

12 山西省考古研究所, 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市北魏宋昭祖墓發掘簡報」, 『文物』7(2001), pp.19-39; 大同市考古研究所·劉俊喜 主編,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文物出版社, 2008), pp.176-182.

13 王銀田·劉俊喜, 「大同智家堡北魏墓石槨壁畫」, 『文物』7(2001), pp.40-51.

14 郭建邦, 「北魏的寧懋石室和墓誌」, 『文物參考資料』2(1980), pp.33-40; 郭建邦, 「北魏寧懋石室線刻畫」(人民美術出版社, 1987); 林聖智, 「北魏寧懋石室的圖像與功能」, 『美術史研究集刊』18(2005), pp.1-74; 鄒清泉, 「圖像重組與主題再造——寧懋石室再研究」, 『故宮博物院院刊』172(2014), pp.97-113.

15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石槨墓」, 『考古』7(2004), pp.38-49; 「西安北周涼州薩保史君墓發掘簡報」, 『文物』3(2005), pp.4-33;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北周史君墓」(文物出版社, 2014).

16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市考古研究所, 太原市晉源區文物旅遊局, 「太原隋代虞弘墓清理簡報」, 『文物』1(2000), pp.27-52; 『太原隋虞弘墓』(文物出版社, 2005).

17 葛承雍, 「北朝粟特人大會衆教色彩的新圖像」, 『文物』1(2016), pp.7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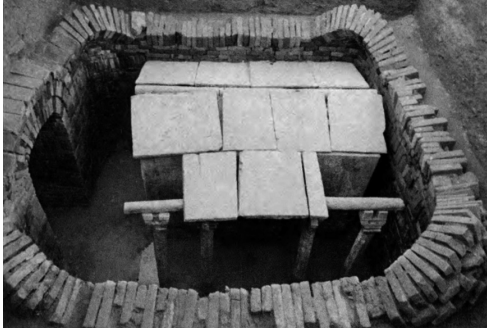
18 王克林, 「北齊庫狄廻洛墓」, 『考古學報』3(1979).

〈표1〉 중국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현황

유형	고분명	시대	고분 구조	葬具		
				유형	크기(長×寬×高)m	意匠 및 도상
1	尉遲定州墓	북위 太安 3년 (457)	單室磚墓	前廊後室式 맞배지붕 石槨/ (內)石床	2.52×1.42×1.85	(前廊) 팔각기둥/ (柱礎) 上圓下方/ (석관상) 물결문
2	張智朗石槨	북위 和平 원년 (460)	土墳墓	石槨/ (內)石床	2.59×2.41×1.75	(석곽)묘주상, 무사, 시녀, 羽人, 봉황, 樹木, 鋪首/ (석관상) 포도넝쿨문, 새, 물결문, 獸面, 화훼
3	宋紹祖墓	북위 太和 원년 (477)	單室磚墓	前廊後室式 맞배지붕 石槨/ (內)石床	2.52×2.65×2.28	(석곽외부벽면)門釘, 鋪首, 연화도안/ (석곽내부벽면)무용도, 주악인물도/ (석곽내부벽면)탄금도/ (석관상)인동 문, 물결문, 鋪首, 화훼문, 동물문
4	智家堡石槨墓	북위 太和 연간 (추정)	土洞墓	맞배지붕 石槨	2.11×1.13×1.70	(석곽북벽)묘주부부도, 남녀시중/ (동 벽)4인시중, 羽人/ (서벽)4인시녀, 羽 人/ (남벽)2인시녀, 牛車, 말, 마부/ (전장부)인동문, 화훼
5	寧懋石室	북위 孝昌 3년 (527)	不詳	맞배지붕 石槨	2.00×0.78×1.38	묘주상과 시녀, 武士, 효자고사, 주방 도, 鞍馬牛車, 山石樹木
6	史君墓	北周 大象 2년 (580)	土洞墓	팔각지붕 石槨	2.50×1.55×1.58	四臂守護神, 祿神, 狩獵, 宴飲, 出行, 商隊, 祭祀, 昇天장면 등.
7	北朝石槨	未詳	未詳	팔각지붕 石槨	2.12×1.25×未詳	守門武士, 神獸, 畏獸, 묘주상, 宴飲, 侍女, 群胡出行, 牛車出行, 儀仗出行, 胡人樂舞, 集會 장면
8	虞弘墓	隋 開皇 12년 (592)	單室磚墓	팔각지붕 石槨	2.47×1.36×2.36	부부초상과 家居圖, 牽馬, 樂舞, 人獸 搏鬪圖, 연음도, 출행도, 火壇, 人首 鷹身像, 演奏圖, 狩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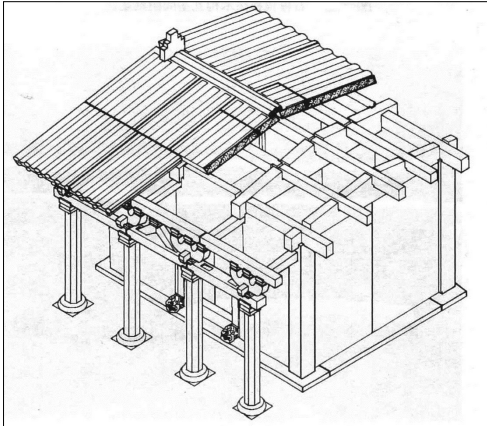
이상에 제시한 북조 시기의 가옥형 석장구는 실제 목조가구의 건축에 비해 석재로 간략화된 건축 모형이며 수량이 적어 유형을 분류함에 한계가 있으나, 지붕 구조의 특징과 건축 공간의 구조원리를 살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본다.

A형: 前廊後室의 건축양식을 갖춘 殿堂式 건축으로,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초기양식을 대표한다. 전면에 팔각형의 기둥을 세워 前廊을 형성하고, 後室에는 주로 石棺床을 두어 시신을 안치한다. 지붕은 單檐의 맞배지붕을 올리고, 정면 3칸의 규모로 조성되며, 측벽의 상부는 삼각형의 박공을 둔다. 전면의 기둥 柱頭 위에 一斗三升의 공포를 올리고 그 위에 수평 가로대를 맞추는 형식이다. 이러한 유형은



1  
〈석곽〉  
북위 457년 尉遲定州墓  
山西 大同

2  
〈석곽〉  
북위 477년 宋紹祖墓  
山西 大同 雁北師院 M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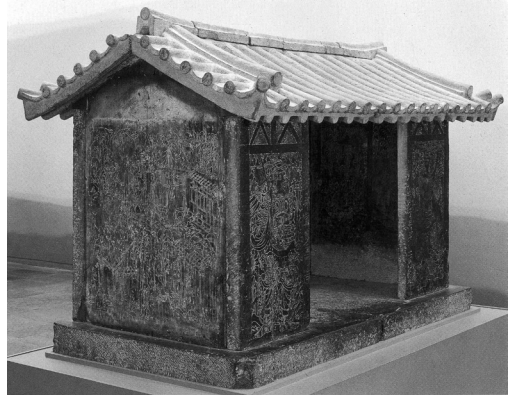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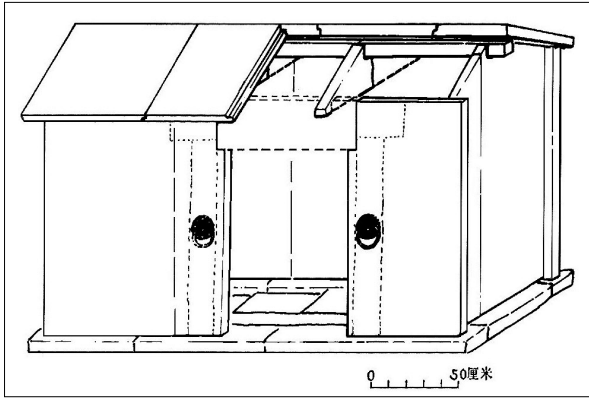


북위 尉遲定州墓의 석곽<sup>도1</sup>과 宋紹祖墓의 석곽<sup>도2</sup>이 해당되며, 張智朗의 석곽도 발굴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으나 크기와 내용으로 보아 본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산시(山西) 大同 陽高縣에서 발견된 위지 정주묘 출토의 석곽은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가장 이른 예다. 긴 墓道를 지닌 단실전묘의 묘실에 서쪽을 향하여 前廊後室의 목조 건축 방식으로 축조된 석곽은 單檐 맞배지붕이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조다. 전면

에 上圓下方의 柱礎를 두고 팔각형의 기둥을 4개 세워 前廊을 형성했다. 주두 위에 일두삼승의 공포를 올리고 그 위에 가로대를 끼웠다. 後室의 상부와 전랑 사이에 얹힌 가로대는 단단치 못한 구조지만, 석곽의 양 측면 상부에 삼각형의 박공을 두고, 내부에도 거의 같은 형식의 박공 두 개를 올림으로써 지붕의 하중을 지탱한다. 문 외벽의 중앙부에 “太歲在丁酉二月辛巳朔十六日丙申”, “步胡豆和民莫堤尉遲定州” 등을 새겨, 묘주의 신분을 짐작케 하나, 실제로 발견된 인골은 머리에 下顎托을 쓴 여성이다. 고분의 墓道에는 각종 동물의 뼈를 부장하여 북방 선비족의 유습을 전한다.

大同 雁北師院 M5묘에서는 太和 원년(477)의 연기를 갖춘 幽州刺史 敦煌公 宋紹祖의 석곽이 발견되었다. 경사진 긴 墓道에 두 개씩의 過洞과 天井을 갖춘 單室 磚墓에는 총 109개의 부재를 사용한 殿堂形의 석곽이 발견되었다. 정면 3칸의 단첨 맞배지붕의 구조로, 남면의 네 기둥은 전랑을 구성하고, 북면으로 후실을 두었다. 건물 측벽의 상부 삼각형 박공 위에는 5개의 도리를 두었으며, 그 위로 완만한 人字형의 판석을 두어 맞배지붕을 만들었다. 남면에 별도로 4개의 팔각기둥을 세워 가로대를 올리고 일두삼승식 공포를 맞추었다. 가로대 중앙에는 상부의 하중을 좌우에 분산시키는 人字 栱을 두었다. 석곽 내부는 凹字형의 石床을 두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으며, 두 쪽의 석문을 달았다. 광실의 내벽에 벽화를 그려 넣었으며, 외벽의 全面에 鋪首와 泡釘을 조각했다.



2011년 大同에서 발견된 모덕조의 부인 장지량 석곽은 현재 발굴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아 형식을 살필 수 없다. 석곽문의 우측에 해서체의 명문이 발견되어 묘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sup>19</sup> 모덕조는 동진 출신으로 宋에서 북위로 투항한 한족 출신의 將領으로 元嘉 6년(429)에 사망했으며, 부인 장지량은 和平 원년(460)에 장례가 치뤄졌다. 고분은 土壙墓에, 석곽과 석관상을 갖추었으며, 채색과 유금을 사용하여 넝쿨포도문과 鳥紋, 獸面, 화훼, 무사, 시녀, 羽人과 봉황 등을 표현했다.

3  
〈석곽〉  
북위  
산시 大同 智家堡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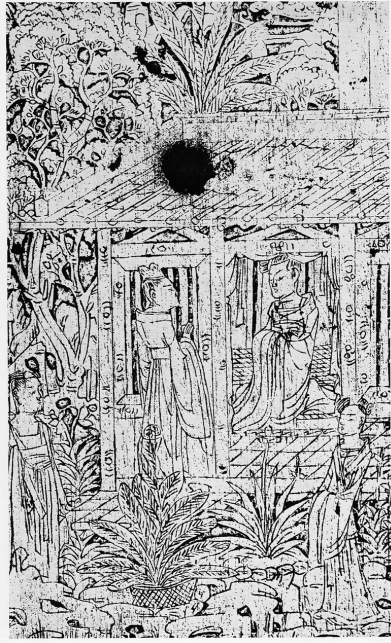
4  
〈寧懋石室〉  
북위 527년 河南 洛陽

B형: 맞배지붕의 단일한 가옥 구조의 건축이다. 전랑을 갖추지 않은 간략한 구조며, 기둥 위의 공포도 아예 생략하거나 도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요소도 간취되는데, 주두 아래로 기둥에 끼워지는 闌額을 형상화하며, 人字栱과 일두삼승식의 공포를 번갈아 배열하면서 도리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위 大同 智家堡 출토의 석곽도<sup>3</sup>와 洛陽에서 출토된 寧懋石室<sup>4</sup>이 본 유형이다. 북위 洛陽期(494~534)에 해당하는 석병풍에 묘사된 건축 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캔자스 벨슨엣킨스 미술관 소장의 북위 석판에 표현된 효자고사도의 건축 배경<sup>5</sup><sup>20</sup>은 당시 禿양의 단일한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북위 大同 지가보석곽묘에서 발견된 석곽은 축조방식이 단순하다. 기단 위에 네 벽체를 세운 후 맞배지붕을 올린 형태로, 별도의 공포를 附加하지 않고 그대로

19 劉俊喜, 앞의 글(2014), pp.120-122.

20 長廣敏雄, 「KB本孝子傳圖について」, 『六朝時代美術の研究』(美術出版社, 1969), pp.187-224, 圖50-51, 圖53 참조.



5  
 <효자고사도>  
 북위  
 벨슨앳킨스 미술관  
 캔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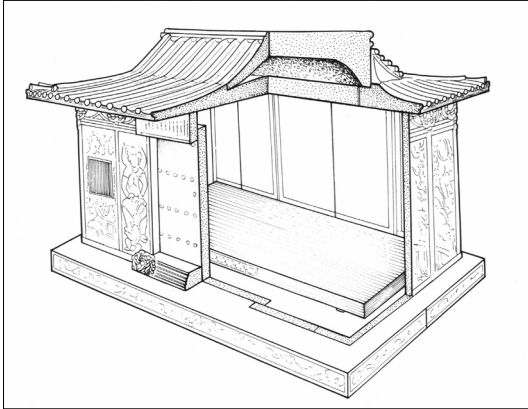
지붕을 올렸다. 지붕면도 장식이 없는 석판을 끼운 형식이다. 좌우 측벽의 상부는 삼각형의 박공을 형성했으며, 내부에도 동일한 삼각형의 박공을 벽체에 그대로 끼워 지붕의 하중을 받친다. 석곽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북면에 부부병좌상, 동서 양면에 남녀시종도, 남면은 거마출행 장면을 표현했으며, 박공과 들보에 인동문과 화훼문을 묘사했다. 석곽 내부의 하단은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벽화가 그려지지 않아, 木床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중인 북위 孝昌 3년(527) 영무 석실은 1931년 허난(河南) 뤼양에서 출토된 전세품으로, 墓誌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1</sup> 맞배지붕의 목조 가구 형식을 모방했으며, 지붕, 벽체, 기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기단은 장방형의 두 판석을 깔았으며, 그 위에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벽체를 세우고, 그 위에 그대로 맞배지붕을 올렸다. 두 석판으로 구성된 지붕에는 암키와와 수키와 및 용마루가 표현되었

다. 좌우 양측 벽체 위에는 삼각형의 박공을 올려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켰다. 정면은 공포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가로대 위에 人字栱을 새겨 표현하고, 좌우 박공에도 人字架와 叉手를 선각으로 재현했다. 건물 내외벽에 武士, 주방도, 효자고사, 거마출행 및 묘주상을 표현했다.

C형: 우진각이나 팔작지붕을 형상화한 것으로, 건축의장이 분화되어 정교하게 제작된 형식이다. 주로 北周와 北齊, 즉 북조 晩期에 해당하며, 史君墓 출토의 石堂<sup>도6</sup>, 중국국가박물관 소장의 북조 석곽<sup>도7</sup>, 虞弘墓 출토의 석곽<sup>도8</sup>이 대표적이다. 또한 庫狄廻洛墓에서 출토된 목재의 부재를 미루어보아, 가옥형 구조의 목곽으로 확인된다.<sup>도9</sup> 본 유형의 석곽 주인은 서역계 인물이 대다수여서 당시 서역인 중 신분이 높았던 이들에게 선호되었던 장구로 보인다. 이러한 북조 만기의 석곽

21 郭建邦, 「北魏寧懋石室和墓誌」, 『河南文博通訊』2(1980), pp.33-20, 圖2-8; 「北魏寧懋石室線刻畫」(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87). 林聖智는 영무석실을 祠堂의 일종으로 보았으며, 鄭巖과 鄒清泉은 기능상 장구로 본다. 추정치는 최근 영무석실의 도상을 분석하여 석실 후벽의 석판을 棺床의 병풍석으로 봤다. 또한 도상을 분석하여 원래 영무석실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했다. 鄒清泉, 「圖像重組與主題再造——“寧懋”石室再研究」, 『故宮博物院院刊』172(2014), pp.97-113; 林聖智, 「北魏寧懋石室的圖像與功能」, 『台灣大學美術史研究集刊』18(2005), pp.50-5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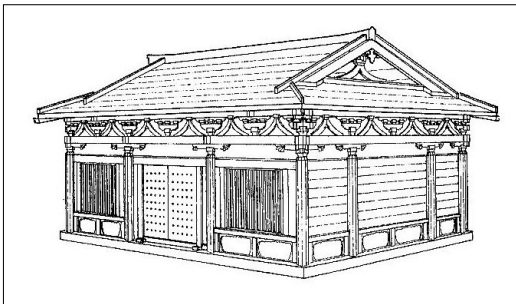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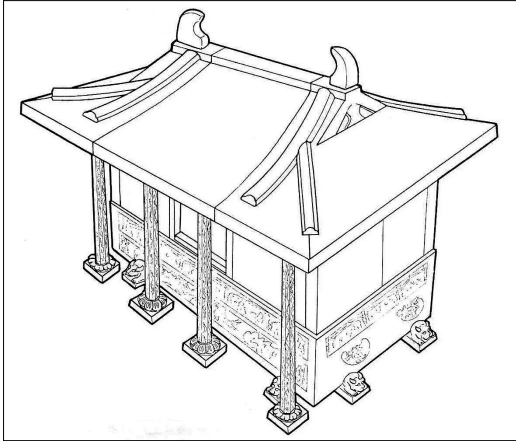
〈石堂〉

북주 580년 史君墓 출토 陝西 서안

유형은 隋唐代 석곽의 기본적인 구조로 연용되며 크게 성행한다.

시안(西安)에서 발견된 史君墓는 사선의 긴 墓道, 여러 개의 天井과 過洞을 가진 土洞墓다. 묘실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형식의 석곽이 건축되었다. 남벽 門楣에는 소그드어와 한문으로 쓰인 題銘記가 발견되어 묘주의 신분을 말해 준다. 史君(Wirkak)은 史國 출신으로 서위 때에 薩保判事曹主, 북주에 들어서서 涼州薩寶를 역임하고, 大象 원년(579)에 사망했다. 같은 해 부인 維耶尉思(Wiyusi)가 사망한 후, 大象 2년(580)에 합장되었다. 또한 석곽지붕 위에는 이를 ‘石堂’이라 題銘하여, 가옥형 석장구의 명칭에 논의를 제시했다. 총 19개의 석판으로 구성된 석당은 대좌, 네 개의 벽, 지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의 일두삼승식 공포와 人字栱을 구성한다. 그러나 기둥의 주두 위에 공포와 외목도리를 연결시켜 표현한 다포양식은 석조건축의 한계를 보인다. 석당의 내부는 석침상이 놓였으며, 사군 부부 합장묘임이 확인되었다. 석당의 네 벽과 주초에는 각종 도상이 부조되었는데, 四臂守護神, 인면웅신의 제사신 및 조로아스터교에서 숭배하는 火壇이 새겨졌다. 서벽은 광배를 배경으로 연화좌에 앉은 神像과 공양의 장면, 부부상 및 수렵도를, 동벽은 원형 광배의 主神과 설교의 장면, 다리를 건너는 낙타와 商人隊를 표현했다.





날아오르는 말과 비천이 묘사되고, 묘주가 비천의 인도로 승천되는 장면을 표현했다. 북벽은 야외에서 상인을 접견하는 장면, 묘주 부부와 연회장면, 출행장면, 포도나무 정원에서의 연음장면, 동굴 안의 노인인 비천에 의해 물에서 구해지는 인물 등을 표현했다.

2012년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국국가박물관 소장품의 북조 석곽은 출토 지역과 묘주에 관한 명문이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석곽의 전면에 표현된 인물군상 거의가 서역인의 복장과 곱슬머리에 심목 고비의 용모를 보여, 묘주는 소그드 계열의 서역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은 팔작지붕의 구조를 가졌으며, 음각선으로 주두공포와 人字栱을 표현했다. 지붕 위에는 鷓尾 하나가 남아 있고, 반원통형의 筒瓦와 연화문 와당의 수막새를 새겼다. 석곽 정면은 별도의 중앙문이 없이 개방형이며, 門楣쪽에 걸쇠가 있어 帷帳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의 양측과 석곽 네 모서리 기둥에 守門武士를 표현했고, 각종 神獸와 畏獸 도상으로 장식했다. 석곽에 음각된 도상은 묘주상과 宴飲 장면, 侍女, 胡群出行, 牛車出行, 儀仗出行, 胡人樂舞 장면 등이다.

1999년 산시 太原市 王郭村에서 발견된 虞弘墓 출토의 석곽은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연구를 흥기시킨 주목할 만한 장구다. 墓誌가 함께 출토

되어 당시 귀화한 소그드인의 행적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석곽에 표현된 다양한 서역계 도상은 많은 연구를 가져왔다. 虞弘은 魚國 출신으로 어국의 수장이던 조부와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들어온 후, 13세 때부터 페르시아에 파견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역임했다. 이후 柔然을 대신하여 페르시아와 투르판 등 서아시아 여러 국을 다녀오는 등 외교적인 수완을 인정받아, 北齊·北周·隋 三朝를 계속하여 관직에 임명되었다. 만년에는 檢校 薩保府의 관리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장례는 隋 開皇 13년(592)에 치러졌으며, 開皇 18년(598)에 부인과 함께 합장되었다. 석곽은 목조 건축물을 본뜬 3칸의 구조에 팔작지붕의 형식으로 백옥석을 다듬어 축조

7  
〈석곽〉  
북조 중국국가박물관

8  
〈석곽〉  
隋 592년 虞弘墓 출토

9  
〈목곽 복원도〉  
북제 562년 庫狄迴洛墓

했다. 석곽의 전면에 네 개의 柱礎를 두고 팔각형의 기둥을 세움으로써 前廊後室의 구조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기단부는 각 면에 두 마리씩 사자 받침대를 두고, 정면은 문비를 따로 두지 않은 개방적인 구조다. 석곽의 하단부는 장방형 상자의 기단을 갖춰 석관상의 역할을 하며, 胡人の 연주 장면과 수렵 장면 및 人面鷹身의 신상과 火壇을 표현했다. 석곽의 벽면에 해당하는 본체는 9매의 판석 위에 정교한 부조와 금박을 섞은 채색회화로 다양한 도상을 그려냈다. 出行, 胡人樂舞, 人獸搏鬪圖, 모주상과 宴飲 장면 등을 표현했으며, 심목고비의 안면에 두광이 표현되었고, 복식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풍이 강하다.

1973년 발굴조사된 북제 河淸 원년(562) 庫狄廻洛墓에서는 묘실 내에 약 50여 점의 목조 가구의 부재가 발견되었으며, 내부에 목관의 흔적이 있어 가옥형 구조의 목곽임을 알 수 있다. 목곽은 이미 없어졌으나 지면의 흔적을 통해, 동서 3.82m, 남북 3.04m의 크기로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인다.

### Ⅲ. 가옥형 석장구의 연원 문제

중국 고대의 관곽제도는 ‘事死如事生’의 관념 하에, 인간이 생전에 사용하던 지상의 건축을 모방함에서 비롯되었다. 先秦 시기 관곽의 사용은 “天子棺槨七重, 諸侯五重, 大夫三重, 士再重”으로 제도화되었으며,<sup>22</sup> 관곽의 크기와 재질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별이 있었다.<sup>23</sup> 또한 “묘실과 무덤은 겉모양을 방과 집처럼 하고, 속널과 덧널은 겉모양을 수레의 옆 판, 위 덮개, 앞 장식, 뒤 가림판처럼 하고, 시신 덮개, 널 덮개, 영구수레의 장식, 관의 장식물은 겉모양을 발, 장막, 휘장, 그물 가리개처럼 하고, 막는 받침과 관 밑을 괴는 장구는 겉모양을 벽, 지붕, 울타리, 대문처럼 한다.”<sup>24</sup>하여 고분을 가옥으로 인식한 葬法은 중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관곽제도는 각 시대의 상장제와 문화양상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신분 및 財富의 정도로 규정대로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일관되게 禮制를 통해 봉건적 사회질서를

22 『荀子』「禮論篇」, 『莊子』「雜篇」에 기술되었으며, 『禮記』에는 “天子之棺四重, 鄭玄注: “諸公三重, 諸侯再重, 大夫一重, 士不重.”으로 내용이 상이하다. 『禮記』, 「檀弓上」(中華書局, 2001), p.107.

23 “君大棺八寸, 屬六寸, 槨四寸; 上大夫大棺八寸, 屬六寸; 下大夫大棺六寸, 屬四寸; 士棺六寸”, “君松槨, 大夫柏槨, 士雜木槨”, “君裏棺虞篋, 大夫不裏棺, 士不虞篋裏棺之物, 虞篋之文未聞也” 『禮記』, 「喪服大記」, 위의 책(2001), p.662.

24 荀子, 장현근 역, 『荀子』(책세상, 2010), p.102 재인용.

확립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에는 선진 시기 고분 안에 석재로 槨을 만들거나, 石床과 石屏風 및 石枕을 두어 시신을 안치하게 한 방식이 존재하지만,<sup>25</sup>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漢代 이전까지 관곽은 목재로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발굴에 의한 石棺葬의 분포 지역은 크게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sup>26</sup> 한 지류는 東北의 遼오하(遼河) 상류지역, 즉 遼오시(遼西)와 內이명구(內蒙古) 동북 및 허베이(河北) 북부지역이며, 다른 지류는 西北의 황하(黃河) 상류지역인 간수(甘肅)와 칭하이(青海) 지역으로 중원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또한 쓰촨 지역 민장(岷江) 상류지역을 중심으로도 석관장이 출토되었고, 동한 시기에는 가옥형의 석관이 발견되어 북조 시기의 것과 비견되기도 한다.<sup>27</sup> 같은 시기 산둥(山東) 지역에서도 석장구가 제작되었다.<sup>28</sup> 동북에서 발견된 석관은 주로 네 벽에 해당하는 판석을 세운 후 석관을 덮거나 석벽을 쌓는 방법 등으로 축조되며, 상자형의 石箱이 출토되기도 한다.

북조 시대를 연 초기 선비 탁발족의 고분에는 북조 전반기에 걸쳐서 유행하는 머리 쪽이 넓고 높으며 발 쪽으로 경사지는 前寬後窄, 前高後低 형식의 梯形棺이 사용되었으며, 북위의 건립 이후 더욱 양식화한다.<sup>29</sup> 이러한 석관장의 출토 현황을 미루어보면, 북조 시기 석장구의 사용은 북방 유목민의 葬俗에서 행해진 장구의 형식에서 유래된 듯하다. 특히 북위를 세운 선비족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石室에서 지냈다. 1980년 따싱안링(大興安嶺) 呼倫貝爾 嘎山洞 동굴에서 북위 황제의 祭祀祝文이 발견되었는데, 『魏書』에서 언급한 ‘舊墟石室’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sup>30</sup> 영원성을 지닌 단단한 속성의 석조건축물 石室에서 국가적인 제사와 의식을

25 前漢 때에 다양한 逸事를 기록한 『西京雜記』에는 廣川王이 옛 고분을 파헤쳤을 때, 전국시대 魏 襄王(제위 기원전 318~296)의 무덤에서 무늬가 있는 石槨, 石床, 石屏風을, 魏 哀王의 무덤에서 石牀, 석병풍, 동장구 및 石枕을, 魏 且渠의 무덤에서 棺槨없이 石床과 石屏風을 발견했다 전한다. “魏襄王塚, 皆以文石爲槨, 高八尺許, 廣狹容四十人, 以手捫槨, 滑液如新, 中有石床, 石屏風, 宛然周正…(哀王塚)復入一戶, 亦石扉, 開鑰得石牀, 方七尺, 石屏風銅帳鉤一具, 或在床上, 或在地下, 似是帳糜朽, 而銅鉤墮落床上, 石枕一枚, 塵埃黽黽, 甚高, 似是衣服…魏王子且渠塚, 甚淺狹, 無棺槨, 但有石床, 廣六尺, 長一丈, 石屏風, 牀下悉是雲母, 牀上兩屍, 一男一女” 劉歆, 葛洪 撰, 임동석 譯, 『西京雜記』권6(동문선, 1998), pp.234-239.

26 李水城, 『石棺葬의起源與擴散——市沱溝嘴東漢崖墓清理簡報』, 『文物』1(1993), p.40; 雷建金, 曾健, 『內江市中區紅樓東漢崖墓』, 『四川文物』4(1989), p.40. 우홍은 북조 시기 가옥형 석곽의 연원으로 사천 지역의 석관을 제시한다. 우홍, 앞의 글(2002), pp.38-40.

28 張汝江, 『兩漢時期畫像石棺石槨藝術』, 『文物鑑定與鑑賞』8(2011), pp.20-27.

29 內이명구 동부와 遼오시 및 허난 지역의 초기 모용선비족의 고분군과, 따싱안링을 중심으로 한 북부선비족의 고분군과 장구의 구조에 관해서는 서윤경, 앞의 글(2008), pp.33-39참조.

30 米文平, 『鮮卑石室의發現與初步研究』, 『文物』2(1981), pp.1-7.

31 “高祖乃詔有司營建壽陵於方山, 又起永固石室, 將終爲清廟焉. 太和五年起作, 八年而成, 刊石立碑, 頌

지행한 것이다. 이러한 ‘石室’에 관한 명칭은 북위 효문제가 馮太后를 위해 평성의 교외 方山(현 西寺兒梁山)에 ‘永固堂’, ‘永固石室’을 조영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sup>31</sup> 실제 유적지의 조사와 『魏書』, 『水經注』의 기록에 의하면, 陵園은 萬年堂, 永固陵, 永固堂, 御路, 思遠佛寺, 陪葬墓, 靈泉宮池 등이 建造되었으며, 이 밖에도 思遠靈圖, 齋堂, 石闕, 鑿玄殿, 文石室이 축조되었음을 전한다.<sup>32</sup> 북위의 초기 帝陵이 일반적으로 金陵에 소재한 것과 달리, 漢代 능원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비족의 石室과 佛寺를 결합시켜 永固陵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石殿 건축의 구조와 건축 의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堂의 네 주위 구석에 樹階, 欄檻, 扉戶, 梁壁, 椽瓦가 늘어졌는데, 모두 문양을 석재로 조각했다. 처마 밑에 있는 네 개의 기둥은 낙양의 八風谷의 흑석을 캐서 만들었는데, 조각이 살짝 솟아있고 그 안에 금은의 云矩가 들어있어 마치 비단과 같았다. 당 내외 사방에 두 개의 돌로 만든 대좌 石趺를 연결시키고 靑石 병풍을 드리웠는데, 문양을 조각한 돌로 테두리를 붙였다. 아울러 忠孝로운 사람의 모양을 은은히 드러나게 하고, 貞順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sup>33</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永固堂은 석재로 만든 건축물로, 계단과 난간 및 문비를 갖추고, 서까래와 기와를 형상화한 지붕을 올렸으며, 처마 밑에 네 기둥을 세워 殿堂後寢의 건축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靑石의 병풍은 유교적인 제재의 충신과 효자 및 열녀의 畫像을 새기고, 테두리는 각종 문양으로 장식했다. 이러한 전당후침의 석조건축은 앞서 살펴본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 A형의 形制와 유사함을 보인다. A형의 형제가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초기양식임을 고려해보면, 북방 선비족의 석장구를 선호한 유습과 북위의 石祠堂과 石廟의 건축양식이 결합되어 새로운 喪葬

太后功德,” 『魏書』卷13, 『皇后列傳』第1, p.329. 이하 正史類史書는 中華書局的 표점교감본에 의거한다.

32 大同市博物館,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大同方山北魏永固陵』, 『文物』7(1978), pp.29-35; 岡村秀典, 向井佑介 編, 『北魏方山永固陵の研究——東亞考古學會1939年收集品を中心として』, 『東方學報』80(2007), pp.150-169; 大同市博物館, 『大同北魏方山寺院佛寺遺址發掘報告』, 『文物』4(2007), pp.5-6

33 『魏書』卷13, 『皇后列傳』第1, pp.329-330; “羊水又東注于如渾水, 亂流徑方山南, 嶺上有文明太皇太后陵, 陵之東北有高祖陵. 二陵之南有永固堂, 堂之四周隅雉, 列樹階欄及扉戶, 梁壁, 椽瓦, 悉文石也. 檐前四柱, 采洛陽之八風谷黑石爲之, 雕鏤隱起, 以金銀間云矩, 有若錦焉. 堂之內外, 四側結兩石趺, 張靑石屏風, 以文石爲緣, 并隱起忠孝之容, 題刻貞順之名, 廟前鑄石爲碑獸, 碑石至佳, 左右列柏, 四周迷禽暗日. 院外西側, 有思遠靈圖, 圖之西有齋堂, 南門表二石闕, 闕下斬山, 累結御路, 下望靈泉宮池, 皎若圓鏡矣.” 『水經注』卷13, 『灤水條』(江蘇古籍出版社, 1989), pp.1138-1139; 양관 저, 장인성, 임대희 역, 『중국 역대 陵寢제도』(서경, 2005), pp.92-96.

具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대의 석조 사당으로는 현재 산둥성 서남부, 장쑤성(江蘇省) 북부의 쉬저우, 안후이성(安徽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다.<sup>34</sup>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현실의 주택을 형상화한 석조건축으로, 주로 맞배지붕의 한두 칸짜리 구조의 사당이다. 북위의 풍속과 경관을 기록한 『水經注』에는 이러한 東漢 이래 陵 앞에 조성하는 석묘와 석사당에 관한 기록이 여럿 전한다. 동한 시기 荊州刺史 李剛의 석사당은 3칸의 석실 구조에, 서까래와 기와를 모두 석재를 다듬어 조각했으며, 네 벽은 君臣과 忠臣 등 인물상과 飛走하는 龜龍鳳麟 등을 장식했는데, 공정이 매우 精慮했다고 한다.<sup>35</sup> 현존하는 대표적인 산둥 嘉祥 武梁祠의 경우, 맞배지붕의 사당으로 크기가 너비 2.41m, 깊이 1.41m, 높이 2.4m 정도로, 북조 전기의 가옥형 석장구와 비교하여 지붕의장이나 크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초기 형식이 당시 지상의 석조 祠廟, 祠堂을 모델로 차용했다면, 묘실 내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시 상장제의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동한 말기 喪葬制에 있어서 큰 변혁은 薄葬이 전반적으로 시행됐으며, 능묘에 봉분과 능원을 조영하지 않는다는 ‘不封不樹’의 葬俗이 확립된 것이다.<sup>36</sup> 고분도 多室墓制에서 점차 單室墓制로 규모가 축소되고, 지상에 기념비적으로 건립되었던 祠堂, 石碑, 石闕, 石表, 石柱, 石獸 등이 曹魏 시기에 이르면 점차 간소화한다. 이러한 상장 관념의 변화는 고분 내의 환경에도 영향을 주었다. 썸의 고분에서는 陶祭臺, 磚榻, 牀榻, 案几, 盤, 陶甗, 牛車 및 帷帳의 부속물 등의 상장기물이 새롭게 부장되는데, 이러한 기물은 묘실 내에서 祭奠이 중시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썸제에 의한 고분의 변화는 북방 십육국 시기와 북위의 고분에 적극 수용되어 북

34 신리상, 소현숙 역, 『漢代 墓地 祠堂과 墓室 圖像의 關係 研究』, 『미술사논단』24(2007), pp.7-38.

35 “黃水東南流，水南有漢荊州刺史李剛墓，剛字叔毅，山陽高平人，熹平元年(172)卒，見其碑。有石闕，祠堂石室三間，椽架高丈餘，鏤石作椽瓦，屋施平天，造方井，側荷梁柱，四壁隱起雕刻，爲君臣·官屬·龜龍鳳麟之文，飛禽走獸之像，作制工麗，不甚傷毀。” 酈道元注，『水經注』卷8，「濟水二」(江蘇古籍出版社，1989)，p.775. 이 밖에도 “山之西側有〈漢日南太守胡著碑〉。子珍，驕都尉，尚湖陽長公主，即光武之伯姊也。廟堂皆以青石爲階陛。廟北有石堂，珍之玄孫桂陽太守瑒，以延熹四年(161)遭母憂，于墓次立石祠，勒銘於梁，石字傾頽，而梁字無毀。” 酈道元注，위의 책(1989)，p.2484; “《西征記》曰：焦氏山北數里，有漢司隸校尉魯峻塚，穿山得白蛇·白兔，不葬，更葬山南，鑿而得金，故曰金鄉山。山形峻峭，塚前有石祠，石廟，四壁皆青石隱起，自書契以來，忠臣·孝子·貞婦，孔子及弟子七十二人形像，像邊皆刻石記之，文字分明。又有石床，長八尺，磨瑩鮮明，叩之，聲聞遠近。時太尉從事中郎傅珍之，諮議參軍周安穆，拆敗石床，各取去，爲魯氏之後所訟，二人並免官。” 酈道元注，위의 책(1989)，pp.778-780.

36 齊東方，『中國古代喪葬中的晉制』，『考古學報』3(2015)，pp.345-366.

37 齊東方，위의 글(2015)，pp.363-365.

조의 고분 환경에 영향을 미쳤으며,<sup>37</sup>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葬俗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IV.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作坊과 피장자의 문제

##### 1. 북조 건축술의 발전과 전문적인 作坊의 성립

중국 북조 시기는 동아시아 건축사에 있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다. 曹魏鄴城 이후로 북위 平城과 洛陽城을 거쳐 동위·북제 鄴城으로의 도성 계획과 구조는 隋·唐의 大興城과 長安城으로 이어지며 정연하고 완벽한 고대 도시의 조영을 이뤘다. 북조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건축기술과 생활양식 전반이 크게 변혁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만들었다.

현재 북조 시기 건축기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사원건축이다. 화북지역을 통일한 북위는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으며, 太平眞君 1년(439) 太武帝가 涼州 지역을 평정하면서 융성했다. 이후 폐불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했으나, 452년 文成帝의 불교 부흥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황제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크게 확산되었다. 동시에 사원의 건립과 승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魏書』, 『釋老志』에 의하면, 興光(454~459) 이후 太和 원년(477)에 사이에 경성 안의 절은 新舊 100여 곳에 달하고, 승려는 2천여 명이었으며, 나라 안의 모든 사찰은 6,478곳, 승려는 77,258명이나 되었다 하며, 이후 延昌 연간(512~515)에 이르면 나라 전체의 사찰이 총 13,727여 곳에 이르렀다 전한다.<sup>38</sup>

이러한 북위 불교사찰의 건립과 흥기과정에 曇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涼州의 승려로 태무제의 북량 정벌 이후에 양주 지방이 점령되면서 이주해 온 3,000여 명의 승려 가운데 일인이었던 듯하다.<sup>39</sup> 북량 정벌 이후 양주 지방 승려와 장인의 대대적인 유입은 당시 북위 불교계에 새로운 신앙과 기술 두 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담요를 중심으로 개작되기 시작한 雲崗石窟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sup>38</sup> 『魏書』卷114, 『釋老志』, p.3039.

<sup>39</sup> “太延中, 涼州平, 徙其國人於京邑, 沙門佛事皆俱東, 像教彌增矣. 尋以沙門衆多, 詔罷年五十已下者.”



10  
 <불감>  
 운강석굴 제10굴  
 前室 西壁  
 산시 大同

의 지원과 이러한 제반 여건의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운강석굴에서 불법의 응집체로 건축된 고층탑을 제외한 殿閣 건축은 일반적인 가옥 또는 전당의 형식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중 제9굴과 제10굴도<sup>10</sup>에 표현된 전각을 살펴보면, 정면 3칸의 우진각 지붕 형식이다. 기단과 초석은 풍화가 심하여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개 기둥은 方柱 또는 팔각주에 가까운 형식이다. 기둥의 상부는 방향의 주두를 두며, 그 위에 짧은 枋木을 올린 후 긴 수평재를 두었다. 그 위에는 일두삼승식의 첨차와 인자형의 부재를 반복하여 표현하고, 지붕은 모두 암키

외와 수키와를 구사했으며, 용마루와 추녀마루를 재현했다. 용마루 위에는 중앙에 봉황, 끝에는 치미, 그 사이에 삼각형의 화염문을 장식해 장엄의 세계를 연출했다. 제9굴과 제10굴은 운강석굴의 제2기,<sup>40</sup> 즉 470~494년으로, 북위 평성기의 건축에서 보면 영고석실이 조영되고, 송소조묘의 석곽이 제작된 시기다. 이들은 각기 불교사원, 祠廟건축, 장구라는 기능과 용도상의 성격이 다르지만, 북위 건축양식의 기술 수준과 상호 유기적인 영향관계를 설명한다.

북위 평성기에 목조와 석조 건축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한 것은 전문화된 장인 집단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석재를 다루는 기술은 숙달된 공정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위는 양주 지역을 병합하면서 돈황과 하서 지역에 거주하는 승려와 장인 집단을 대대적으로 이동시켰으며, 대규모의 석굴사원과 불사건축, 궁성과 능원을 조성하면서 건축기술과 의장장식을 전수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건축의장의 공통적인 공유는 한 시대를 통용하는 기술과 전문화된 工房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북조 가옥형 석장구 중 북위 太安 3년(457) 위치정주묘 출토의 석곽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그 기본 형식은 전랑후실의 구조에 전당 형식으로 축조된 것이다. 이는 북위 평성기 전당형 건축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

『魏書』卷114, 『釋老志』, p.3032.

40 宿白은 운강석굴을 구분함에 있어 1기를 담요5굴이 개착된 460~470년까지로, 2기를 470~494년, 3기를 494~526년으로 구분한다. 宿白, 『平城實力的集聚和“雲岡模式”的形成與發展』, 『雲岡石窟』(文物出版社, 1989), pp.176-197.

41 鄒清泉, 『北魏孝子畫像研究』(文化美術出版社, 2007), 부록4 <北朝詔賜“東園祕器”情況表>, pp.190-

로, 상장제의의 변화에 따라 고분 내에 축조된 것이다.

한편 장례시에 쓰는 상장기물은 관방에서 제작된 것과 민간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관에서 쓰이는 상장기물의 제작은 漢代 이래 ‘東園’ 또는 ‘東園祕器’의 제도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황실의 陵寢제도와 王公귀족의 고분에 쓰이는 상장기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官府였다. 북조 시기는 한대의 제도를 연용하여 東園祕器를 내리고 있는데, 북위 永興 5년(413)부터 북제 武平 2년(578)까지 총 40여 차례 하사한 사례가 있다.<sup>41</sup> 『洛陽伽藍記』에도 북위 淸陽에 전문적인 喪葬具를 제작하는 作坊과 장인이 있었음을 전한다. 북위 坊牆制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거주케 한 제도였는데, 북위 淸陽의 서북쪽 慈孝里와 奉終里에는 관곽을 매매하는 喪葬業을 위주로 한 作坊이 있었다. 이곳에서 淸陽에서 유통되는 각종 관곽과 喪車 및 송장기물 등 상장례에 쓰이는 물품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만가를 부르는 직업도 있었다.<sup>42</sup> 북위 淸陽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석장구의 도상을 살펴보면, 제재와 도상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상장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作坊에서 畫稿로 다뤘기 때문일 것이다.<sup>43</sup> 북위 평성기에 완성된 가옥형 석장구도 낙양기에 들어서면, 보다 단일하고 간략한 형식으로 양식화되면서 크게 성행하는데, 이러한 상장업에 전문화된 作坊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서역계 민족의 석장구와 葬法의 관계

북조 시기 석장구의 연구에서 항상 대두하는 문제는 장구의 주인으로 서역인이 많은 연유에 관해서 뚜렷한 정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서역인의 본토라 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서북고원지대 및 실크로드의 선상에 석장구의 구조와

205.

42 “洛陽太市北奉終里。里內之人多賣送死人之具及諸棺槨。涵謂曰。作柏木棺。勿以桑木爲槨。人間其故。涵曰。吾在地下。見人發鬼兵。有一鬼訴稱。是柏棺應免主兵。吏曰。爾雖柏棺桑木爲槨遂不免。京師聞此柏木踴貴。人疑賣棺者貨。涵發此等之言也。”『洛陽伽藍記郊餞』권3, 「城南」, 〈菩提寺〉(中華書局, 2006), p.154; “市北慈孝奉終二里。里內之人以賣棺槨爲業。輜車爲事。有輓歌孫巖。”『洛陽伽藍記郊餞』권4, 「城西」, 〈法雲寺〉, p.177.

43 林聖智는 북주 강업묘의 석관상을 고찰하여, 북위 淸陽의 作坊이 분화해 ‘長安葬具作坊’이 생겼으며, 이곳에서 북주의 상장기물이 제작되었음을 분석했다. 林聖智, 「北周康業墓園扉石棺床研究」, 榮新江·羅豐 主編, 앞의 책(2016), pp.237-263.

44 程林泉·張翔宇·張小麗, 「西安北周李誕墓初探」, 『藝術史研究』7(2005), pp.299-308; 國家文物局 主編,



유사한 유물이나 유적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기록자료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옥형의 석장구도 예외가 아니다. 대개 중국 경내에서 활동한 서역인의 석장구는 크게 석관, 석병풍과 석관상, 석곽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形制는 다르지만 장구상에 표현된 도상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6세기 후반에 집중된 석장구의 피장자와 그들의 생활환경 및 葬法을 추적함으로써, 본 석장구와 건축과의 영향 관계를 추론해본다.

북조 시기에 발견된 서역인의 석장구는 앞서 살펴본 史君墓와 虞弘墓에서 출토된 석곽 외에, 北周 保定 4년(564) 李誕墓의 石棺,<sup>44</sup> 북주 天和 6년(571) 康業墓의 石屏風·石床,<sup>45</sup> 북주 大象 원년(579) 安伽墓의 石屏風·石床<sup>46</sup>이 있다. 또한 연기가 정확치 않으나 관련한 석장구로 허난 安陽 출토의 북제 石棺床과 石屏風,<sup>47</sup> 일본 미호(MIHO) 미술관 소장의 石屏風,<sup>48</sup> 간수(甘肅) 天水 石馬坪 출토의 隋代 石屏風·石床,<sup>49</sup> 기메미술관의 6세기 石屏風·石床, 그리고 앞서 살펴본 중국국가박물관 소장의 북조 석곽 등이 있다.

이상 석장구의 주인공 이탄은 인도의 罽賓(현 카시미르)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바라문종이며, 강업은 康國王의 후예로 일찍이 大天主를 역임한 바 있다. 안가는 姑藏(현 涼州) 출신으로 同州薩保, 大都督을 역임했고, 사군 역시 史國 출신으로 薩保判事曹主와 涼州薩保를 제수받았다. 우흥도 檢校 薩保府의 관리직을 역임

<sup>44</sup> 『西安北郊北周李誕墓』, 『2005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2006), pp.123-128.

<sup>45</sup> 國家文物局 主編, 『西安北周康業墓』, 『2004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2005), pp.123-131;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康業墓發掘簡報』, 『文物』6(2008), pp.14-35; 程林泉·張翔宇·山下將司, 『北周康業墓志考略』, 『文物』6(2008), pp.82-84.

<sup>46</sup>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北郊北周安伽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6(2000), pp.28-36;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發現的北周安伽墓』, 『文物』1(2001), pp.4-26; 陝西省考古研究所 編, 『西安北周安伽墓』(文物出版社, 2003).

<sup>47</sup> 허난 安陽 출토의 석관상과 석병풍은 현재 보스틴미술관과 기메미술관 및 쾰른미술관에 분산 소장중이다. Gustina Scaglia, "Central Asians on a Northern Ch'i Gate Shrine," *Artibus Asiae*, XXI, 1, 1958, pp.9-28; 姜伯勤, 『安陽北齊石棺床의 圖像考察與入華粟特人的 祇教美術』, 『藝術史研究』1(1999), pp.151-186.

<sup>48</sup> Annette L. Juliano and Judith A. Lerner, "Cultural Crossroads: Central Asian and Chinese Entertainers on the Miho Funerary Couch," *Orientalism*, Vol.28, No.9(Oct. 1997), pp.72-78; "The Miho Couch Revisited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 *Orientalism*, Vol.32, No.8(Oct. 2001), pp.54-61; 姜伯勤, 『圖像證史: 入華粟特人 祇教藝術與中華禮制藝術的 互動—MIHO博物館所藏北朝畫像石研究』, 『藝術史研究』3(2001), pp.241-259.

<sup>49</sup> 天水市博物館, 『天水市發現隋唐屏風石棺床墓』, 『考古』1(1992), pp.46-54; 李寧民, 『天水出土屏風式石棺床的修復及研究』, 榮新江·羅豐 主編, 앞의 책(2016), pp.191-206.

<sup>50</sup> 吉田豊, 『ソグド語資料から見たソグド人の活動』, 『岩波講座世界歴史(新版)11: 中央ユーラシアの統合』(岩

했으며, 북주와 수에서도 祿祠와 외교업무를 관장했다. 이렇듯 墓誌가 발견된 고분의 주인은 거의 대부분이 薩保를 지낸 이력이 있다. 薩保(또는 薩甫)는 박트리아語에서 유래한 소그드어 'sartpaw'에 어원이 있으며, 당대에 薩寶로 일컬어졌다. 살보는 '商隊領袖'로 중국 경내에 이주한 사람들의 취락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으며, 그들의 신앙 祿敎를 통할하는 大首領이었다.<sup>50</sup> 중국에 귀화한 외국인들을 관리함에 이국의 인물을 관리로 했다는 것은 당시 외국인의 수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洛陽伽藍記』에 의하면, 북위 淸陽에 거주한 인구를 10만 9천여 戶로 보았을 때, 서역인이 집중 거주했던 慕義里에는 1만 戶가 거주했으며, 淸陽에 체류한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가 3천여 인에 달했다 한다.<sup>51</sup> 북조 만기에는 더욱 성했을 것이다. 많은 수의 서역인과 종교에 관련한 인물이 많이 도래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역의 문화와 풍속이 상당한 수준으로 침투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치구역을 만들고, 무역을 관할하는 경제활동을 매개로 부를 축적했으며,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를 통해 종족의 결속을 꾀했다. 이러한 규모가 큰 외국인의 자치구역을 관리하는 살보의 역할은 상당했다. 이에 당시 조정에서 살보의 상장례에 관련한 것을 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고분이 장안성 東郊의 龍首原 귀족고분군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고분의 구조와 장구의 형식도 기타 북조의 葬制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52</sup>

한편 중국에 귀화한 서역인들이 신봉한 종교는 불교와 祿敎, 즉 조로아스터교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란 문명에서 탄생한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신봉된 종교로, 불을 최고신의 상징이자 火神으로 숭배하여 '拜火敎'로도 일컬어진다. 중국으로 유입된 조로아스터교는 '祿敎', '火祿敎', '胡祿'으로 불리며, 서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포교되었다. '祿祠'는 이러한 중국으로 귀화한 천교도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주재하는 종교 활동의 장소로, 또한 각종 胡律을 집행했는데, 물건을 훔치면 발을 절단하고, 중한 죄를 지으면 심지어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다.<sup>53</sup> 종교적인 결집 장소인 동시에, 사회 통제

波書店, 1997), p.50; 榮新江, 「薩保與薩薄: 北朝隋唐胡人聚落首領問題的爭論與辯析」, 『中古中國與粟特文明』(三聯出版社, 2014), pp.163-185; 「薩保與薩薄: 佛教石窟壁畫中的粟特商隊首領」, 위의 책(2014), pp.186-216.

51 최진열, 「北魏後期 洛陽 거주 西域人과 西域文化」, 『大東文化研究』87(2014), pp.241-278.

52 대표적으로 사근묘는 경사진 墓道에 5天井, 5過洞, 甬道와 墓室의 구조인데, 동 시기 宇文泰의 아들 宇文儉의 고분과 크거나 구조가 거의 같다. 陝西省考古研究所, 「北周宇文儉墓清理發掘簡報」, 『考古與文物』3(2001), p.28.

53 「米國·史國·曹國·何國·安國·小安國·那色波國·烏那曷國·穆國皆歸附之. 有胡律, 置於祿祠, 將決

의 기능까지 담당한 것이다. 천사는 北涼 承玄 3년(430) 高昌城 동쪽에 胡天을 모시는 祆祠가 있었다고 하여 5세기 전반에 설치되었으며,<sup>54</sup> 중국 경내에는 沙州(燉煌), 涼州, 長安, 洛陽 등 소그드인의 취락이 있는 곳에는 祆祠가 거의 같이 건립되었다. 천사의 주재자는 祆主였으며, 제례시 각종 幻術을 행했다.<sup>55</sup> 당시 祆祠가 어떠한 건축구조였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神像을 두지 않고 큰 건물 아래에 크고 작은 화로를 설치해 놓았다. 처마는 서쪽을 향해있고, 사람은 동쪽을 향해 예배를 한다.”<sup>56</sup>는 기록을 통해 여전히 불을 숭배하여 火壇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중국 내에 정착한 소그드인은 자치적인 취락과 천사를 통해 그들만의 결집을 꾀했으며, 한편으론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의식을 엄격하게 다른 페르시아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중국의 소그드인 가운데는 불교도도 상당하여 타종교 간의 습합이 이루어졌으며,<sup>57</sup> 葬俗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魏書』과 『通典』에는 서역국가 康國과 石國의 상장풍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康國의 혼인과 상례는 돌궐과 동일하다. 나라에서 조상들의 사당을 세워 유월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여러 나라들도 모두 제사지내는 것을 돕는다. 부처를 신봉하며 호서(胡書)를 쓴다.<sup>58</sup>

(康國)…天神(祆教)을 독실하게 믿으며…성 밖에 따로 이백여 가구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喪葬의 일을 맡게 하여 별도로 院을 두고 개를 키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院

罰, 則取而斷之. 重者族, 次罪者死, 賊盜截其足.” 『魏書』卷102, 「列傳」90, p.2281; 榮新江, 「北朝隋唐胡人聚落的宗教信仰與祆祠的社會功能」, 榮新江, 앞의 책(2014), pp.235-265 참조.

54 “庚午歲四月十三日於高昌城東胡天南太后祠下, 爲索將軍佛子妻息合家, 寫此金光明經一部, 斷手記竟, 筆墨大好, 書者手拙, 具字而已, 後有□□□□之吉, 疾成佛道.” 『金光明經』卷第2, 凡五千四百卅三言. 陳國燦, 「從敦煌吐魯番所出早期寫經看佛教的東傳西漸」, 『普門學報』7(2002), p.5 재인용.

55 “河南府立德坊及南市西坊皆有胡祆神廟. 每歲商胡祈福, 烹豬羊, 琵琶鼓笛, 酣歌醉舞. 爵神之後, 募一胡爲祆主, 看者施錢並與之. 其祆主取一橫刀, 利同霜雪, 吹毛不過, 以刀刺腹, 刃出於背, 仍亂擾腸肚流血. 食頃, 噴水哭之, 平復如故. 此西域之幻法也. 涼州祆神祠, 至祈禱日祆主以鐵釘從額上釘之, 直洞腋下, 即出門, 身輕若飛, 須臾數百里. 至西祆神前舞一曲即卻, 至舊祆所乃拔釘, 無所損. 臥十餘日, 平復如故. 莫知其所以然也.” 『唐兩京城坊考』卷5, 「朝野儉載」卷3(中華書局, 2008), pp.64-65.

56 “祆神本自波斯國, 乘神通來此, 常見靈異, 因立祆祠. 內無像, 於大屋下置大小爐, 舍簷向西, 人向東禮.” 唐 段成式, 鄭煥局 譯, 『역주 酉陽雜俎』, 「物異」(소명출판, 2011), p.244.

57 소그드인을 통솔하는 살보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었음이 서위 大統 16년(550)의 년기가 있는 《岐法起造像碑》(上海博物館 所藏)에는 “佛弟子岐薩保”라는 題名을 통해 확인된다.

58 “婚姻喪制與突厥同. 國立祖廟, 以六月祭之, 諸國皆助祭. 奉佛, 爲胡書.” 『魏書』卷102, 「列傳」90, p.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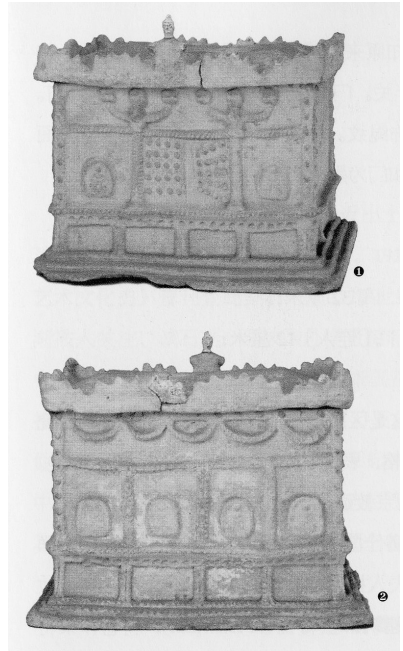
59 “康國人…俗事天神, 崇敬甚重…國城外別有二百餘戶, 專知喪事, 別築一院, 院內養狗, 每有人死, 即往

에 두어, 개로 하여금 죽은 이의 살을 먹게 하고 남은 골격을 거두어 매장되 棺槨을 없이 한다.<sup>59</sup>

(石國)…정월 6일, 칠월 15일, 왕의 선친 유체를 태우고 남은 뼈를 金甕에 담아床 위에 올려놓은 뒤, 돌아다니며 행진하고, 花香과 갖은 과일들을 뿌리며, 왕은 신하들을 통솔해 제사를 올린다. 예식이 끝나면 왕은 부인과 함께 별도로 설치한 장막으로 들어가고, 신하들은 서열에 따라 착석하여, 연회를 베푼 뒤 끝난다.<sup>60</sup>

위의 기록에 의하면, 서역계 소그드인의 장법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엄격하게 시행된 天葬과는 달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서역의 康國은 북방 민족의 돌궐과 관혼상제를 공유하고, 사당을 세워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기리는 한편, 불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喪葬의 일을 관장하는 別院을 설치하고 개에게 먹이고 남은 인골을 無棺槨의 장법으로 매장한다. 일반적으로 서역민족은 사람이 죽은 후 직접 땅에 매장하면 대지가 오염된다 하여 남은 뼈를 納骨器(Ossuary)에 안치하는 葬制를 쓴다. 위의 글에서 ‘金甕’은 유체의 뼈를 담은 납골기인 것이며, 床위에 안치함으로써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현재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자라프산 등지에서 발견된 납골기의 종류는 다양한 조형으로 만들어졌는데,<sup>61</sup> 중국고궁박물관에 소장된 陶製 납골기는 건축의 모형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sup>도11</sup> 정면 3칸, 후면 4칸의 구조에 覆斗形의 지붕뚜껑을 올렸으며, 각 벽면에 龕室을 두어 그 안에 神像을 표현했다. 윗부분은 鋸齒紋으



11  
〈陶製 납골기〉  
唐  
중국고궁박물관

取屍，置此院內，令狗食之，肉盡收骸骨，埋殯無棺槨。”『通典』卷193，「西戎，康居」引(中華書局，1973)，p.1850.

60 “石國…國城之東南立屋，置座於中。正月六日·七月十五日以王父母燒餘之骨，金甕盛之，置於床上，巡遶而行，散以花香雜果，王率臣下設祭焉。禮終，王與夫人出就別帳，臣下以次列坐，享宴而罷。”『隋書』卷83，「列傳」48，p.1850.

61 국립중앙박물관 편,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국립중앙박물관, 2009), 圖72-77 참조.

62 “死者以火焚燒。收骨葬之。上起浮圖。居喪者剪髮髻面爲哀戚。髮長四寸。即就平常。唯王死不燒。置之

로 조각하고 뚜껑의 손잡이에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 붙였다. 이러한 건축형 납골기는 중국의 전당형 건축과 서역에서 볼 수 있는 성채건축의 방어벽을 재현한 거치문, 뚜껑에 인물을 조각하여 장식하는 서역식 납골기의 요소가 집합된 新형식의 장구인 것이다.

상장례에 있어 통일되지 않은 서역인의 장법은 그 자체로서 서역인 葬制의 특징으로 보인다. 서역민족은 일반적으로 납골의 장법을 취하지만, 왕이나 권력이 있는 자는 납골의 장법을 쓰거나 장구를 사용하는 두 방식을 혼용하기도 했다. 서북방의 민족 가운데 于闐國의 장례풍습은 “죽은 후에 화장하여 뼈를 거두어 장례를 지내고 그 위에 탑을 세우며, 상을 당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갈자국을 내어 슬픔을 나타내고, 왕이 죽었을 때는 화장하지 않고 관에 넣어 먼 들판에서 장사지내며, 사당을 세워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낸다”<sup>62</sup>고 전한다. 조사발굴에 의하면 신분이 높은 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죽은 시체에 방부처리를 한 후 매장하는 방식을 쓰는데,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사군묘의 주인은 가슴과 복부에 수은을 넣은 흔적이 있어,<sup>63</sup> 전통적인 천장을 위주로 하는 장속과 완전히 차별된다. 북조 시기 석장구의 주인 대다수가 政敎의 首領이었던 그들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서역의 일반적인 납골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식의 고분을 축조하고 새로운 葬法의 석장구를 사용하되, 건축의장에는 농후한 서역의 풍속과 신앙의 도상을 채워 넣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조 시기 서역인의 석장구는 상장문화의 습합과정에서 創製된 새로운 形制의 장구인 것이다.

## V. 가옥형 석장구의 건축의장에 반영된 喪葬祭儀

일반적으로 고분 내에서 발견되는 喪葬器物은 당시의 棺槨제도와 喪葬祭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척도가 되며, 더욱이 기물에 표현된 意匠에는 민족과 종교, 사후세계관은 물론 당시 문화예술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는 특수한 장구의 형태에 다양한 건축의장이 결집되어 당시 상

棺中. 遠葬於野. 立廟祭祀. 以時思之.” 『洛陽伽藍記郊餞』권4, 「城北」〈聞義里〉, p.210.

63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北周史君墓』(文物出版社, 2014).

64 楊效俊, 「壁畫與葬具: 6-7世紀墓室象征意義的轉變」, 『唐墓壁畫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三秦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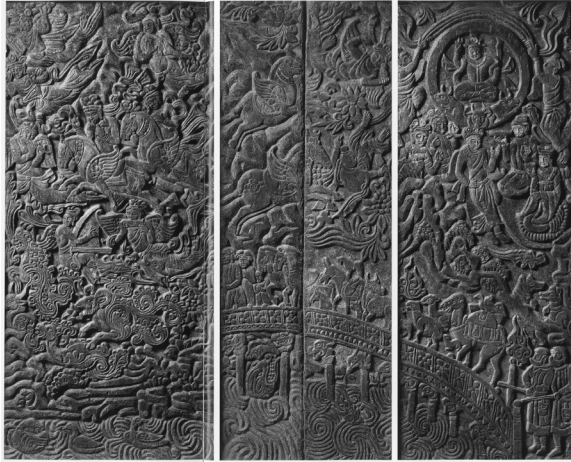
장제의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북조 시기의 고분은 전대에 비하여 능원의 규모가 축소되고 形制도 多室墓에서 單室墓로 점차 획일화된다. 지상에 기념비적으로 건립되었던 祠堂, 石碑, 石闕, 石柱, 石獸 등의 석조건축물은 점차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간소화되거나 사라졌고, 墓誌銘은 고분으로 안치되었으며, 묘실 내에서의 祭奠이 중시되었다. 晉代 이래 薄葬의 영향으로 묘실이 寢宮, 寢室化된 것이다.<sup>64</sup> 이러한 고분 환경의 변화는 북조 가옥형 석장구의 葬俗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능한다.

북조 가옥형 석장구는 석재를 사용하여 목조 가옥의 건축원리로 구축되었다. A형의 형성 단계는 450년대부터 太和 年間(494)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로, 前廊 後室의 殿堂式 건축으로 구축된다. 송소조 석곽으로 대표되며, 전면에 기둥을 세워 전랑을 형성하고, 후실에 석상을 둠으로써 실제 전당식의 건축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당시 제작과정은 기록치 않았던 것으로, 송소조 석곽의 경우 총 109개의 석판으로 축조되었고 세부 공정은 매우 치밀했다. 이러한 제작 공정에서의 까다로움은 이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다음 단계, 즉 B형의 단일한 가옥 구조로의 변화로 이어진 듯하다. 북위 魏양기에 집중되는 시기로, 석장구로서의 기능은 더욱 완비되고, 동시기의 석관상과 석병풍, 석관에 나타나는 도상의 공유는 더욱 증대된다. 묘주초상을 중심으로 시녀와 시종을 두고, 鞍馬와 牛車가 병립하며, 생활 제재의 장면과 함께 효자도상이 유행한다. 洛陽期 전문적인 작방은 이러한 도상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C형 단계는 북조 晚期에 해당하는 시기로, 동위와 서위를 거쳐 북제와 북주의 시기에 제작된 석장구이다. 건축 구조는 더욱 분화되고, 장구 주인은 서역인이 많아져 도상과 건축의장 역시 그들의 풍속과 상장문화를 반영한다. 주로 살보와 같은 귀화한 서역인 가운데 직책이 높은 인물들의 장구로 제작되었으며, 신분을 표현하는 연회장면, 제례장면 및 승천장면이 묘사된다. 또한 상장례와 결합된 종교신앙의 요소로 祭司와 火壇의 결합도상, 犬視 장면, 死者가 친바트 다리를 건너는 장면 등이 표현되고, 서역의 풍속을 재현한 연음 장면, 역사적인 사실을 표현한 會盟 장면, 무역의 장면, 출행 장면 등을 묘사했다. 그 가운데 사군묘 석당의 동벽에는 死者가 물질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경계인 친바트 다리를 건너 천당의 미트라 신과 심판관들 앞에 서는 장면

2006), pp.99-113.

65 董梅, 「關中地區隋唐時期石槨及其相關問題研究」(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13)에 관중지역에서 발견



12

〈승천 장면〉  
史君石堂의 동벽

을 구사한다. 다리 앞에는 두 명의 재판관과 두 마리의 개가 이 사자를 인도한다.<sup>65</sup>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서 나온 구원의 장면인 것이다. 이러한 북조 시기의 가옥형 석장구는 시대의 변화양상에 따라 건축의 조형과 건축의장이 변천했으며, 동시에 상장례에 사용된 장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북조 시기의 특수한 장구인 것이다.

이러한 북조 시기의 가옥형 석장구는 隋唐의 상장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당 시기에 축조된 가옥형 장구는 關中지역에서만 28

구가 발견되었다.<sup>65</sup> 대표적으로, 李靜訓(608)·李壽(631)·鄭仁泰(664)·懿德太子(706)·章懷太子(706)·永泰公主(706)·韋詢(708)·韋洞(708)·薛儼(721)·李憲(742)·楊思勳(740)·武令璋(754) 등으로, 신분지위가 황실 출신이거나 고위 功臣의 고분에서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형식이 발견되는 것이다. 특히 석장구 주인의 신분 대다수가 정이품 이상의 고관 또는 황족 출신이다.<sup>66</sup> 이는 통치자의 恩准을 받은 특수한 장구를 의미하며, 석곽의 크기와 形制의 차이는 묘주인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로 축조되는 고분과 석재를 사용해 섬세하게 작업하는 석장구의 제작은 당시 상장제에 있어 큰 부담이었다. 이에 차후 이에 대한 제재가 생겼으니, 大唐制에는 석장구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諸葬에서는 石으로 棺槨 및 石室을 만들거나, 棺槨에 조각, 칠화, 扉, 欄干 등의 설치와 棺 내에 金寶珠玉을 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sup>67</sup>

여기서 언급된 장구는 석재로 축조된 관곽에 문과 난간을 갖춘 가옥형 석장

된 隋唐 시기 27具의 장구를 정리했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석곽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洛陽市文物考古研究院, 『洛陽伊川營唐代石槨墓發掘簡報』, 『文物』6(2016), pp.30-40.

<sup>66</sup> 齊東方, 『試論西安地區唐代墓葬的等級制度』, 『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三十周年論文集』(文物出版社, 1990).

<sup>67</sup> “大唐制, 諸葬不得以石爲棺槨及石室. 其棺槨皆不得雕鏤彩畫, 施戶牖欄檻, 棺內又不得有金寶珠玉.” 『通典』禮45, 『棺槨制』.

구를 일컫는다. 세부는 화려한 조각과 채색을 입히고 棺 내에 금은보주의 상징기물을 안치한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당대의 장구는 북조 시기의 가옥형 석장구를 그대로 연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건축의장의 방면에서는 당시의 祭儀를 표상하는 제재로 변화되었다.

## Ⅵ. 맺음말

중국 북조 시기의 고분에서는 석재를 사용하여 목조 가옥 건축을 모방한 특수한 관곽, 가옥형 석장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장구의 주인은 대부분이 북방 민족과 서역 민족이며, 장구의 건축의장과 도상에는 다양한 제재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북조 시기 생활상과 문화교류 및 喪葬祭儀를 규명할 수 있는 일차적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연원 문제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건축 방면에서는 현존하는 목조 건축의 부재와 고고학적 발굴의 한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본고는 북조 시기 실제 건축의 모형인 가옥형 석장구가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인지하면서, 본 연구대상의 건축적 특징과 공간 구조의 원리를 토대로 유형의 분류를 시도했다. 북방 선비족이 석장구를 선호했던 풍습과 북위 평성기에 축조된 석조건축물의 기록, 그리고 불교 석굴사원이 대대적으로 개착된 과정은 북조의 석조 건축기술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또한 북조에 들어서 변화한 상장제도도 고분의 환경을 바꾸었고, 새로운 葬制 및 장구를 모색하게 된다. 북조 가옥형 석장구는 이러한 고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創製된 장구인 것이다. 북위 때에 이미 확립된 전문적인 匠人집단과 作坊은 변모한 장제와 건축의장의 공유를 확산시킴에 일조했다. 북조 만기에 들어서, 소그드 계통의 서역계 민족이 이러한 석장구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역시 상장문화의 습합과정에서 비롯된 新形制의 장구로서 기능했다.

중국 북조 시기는 고대 동아시아 건축사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이다. 북조의 도성은 隋, 唐代 도시의 기반을 형성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교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방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받아들여진 종교와 신앙은 대규모의 종교건축을 조영케 했으며, 사람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활발한 북조의 시대상은 보수성과 전통성이 강한 고분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조 시기 가옥형 석장구의 구조와 건축의장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내고자 한 본 연구는 문화교류와 상장제의의 방면에서 다차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북조 시기 역동적인 시대상의 한 단면을 살피고자 했다. 북조 시기 가옥형 관곽은 이러한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라 새롭게 創製된 장구로서, 고분 주인의 현세적 거주 공간을 재현하여 安慰를 전하는 동시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祭奠을 치르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환원된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北朝 Northern Dynasties, 가옥형 石槨 house-shaped sarcophagi, 建築意匠 architecture iconography, 石棺 stone sarcophagus, 喪葬儀禮 funeral rituals, 喪葬미술 funeral arts, 소그드 미술 Sogdian art, 宋昭祖 Song Shaojou, 史君 Shi Jun, 虞弘 Yu Hong

투고일 2017년 1월 19일 | 심사일 2017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20일

- 『北齊書 *Beiqishu*』  
 『隋書 *Suishu*』  
 『魏書 *Weishu*』  
 『周書 *Zhoushu*』  
 『後漢書 *Houhanshu*』  
 『水經注疏 *Suijingzhushu*』

발굴보고서 및 논저

- 葛承雍 Ge Chengyong, 「北朝粟特人大會衆祆教色彩的新圖像 New Images with Zoroastrian Flair in a General Assembly of Sogdians during the Northern Dynasties」, 『文物 *Wenwu*』1, 2016.
- 大同市考古研究所·劉俊喜 主編 Datong Institute of Archaeology ed., Liu, Junxi,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 *Tombs of the Northern Wei Period in Yanbei Teachers College at Datong*』,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chubanshe, 2008.
-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考古研究所, Shanxi Provincial Institute of Archaeology & Taiyuan Municipal Institute of Archaeology, 『太原隋虞弘墓 *Sui Dynasty Tomb of Yul Hong in Taiyuan*』,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chubanshe, 2005.
-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Xi'an Institute of Archaeology and Conservation on Cultural Heritage, 『北周史君墓 *Shi Jun Tomb of the Northern Zhou Dynasty*』,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chubanshe, 2014.
- 榮新江·羅豐 主編 Rong Xinjiang & Luo Feng eds., 『粟特人在中國——考古發見與出土文獻的新印證 *Sogdians in China: new evidence in archaeological finds and unearthed texts*』上·下, 科學出版社 Kexuechubanshe, 2016.
- 巫鴻 主編 Wu Hung ed.,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 *Between Han and Tang Cultural and Artistic Interaction in a Transformative Period*』,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chubanshe, 2001.
- Wu Hung, “A Case of Cultural Interaction: House shaped Sarcophagi of the Northern Dynasties,” *Oriental Art*, May, 2002.

## A Study on Architecture Iconography of House-shaped Sarcophagi in the Northern Dynasties of China

Seo, Yunkyung

During the Northern Dynasties of China, 'house-shaped sarcophagi' excavated in ancient tombs was a special coffin-burial imitating wooden house architecture with stone. The origin of house-shaped sarcophagi of the Northern Dynasties was not revealed clearly. However, the sarcophagi are models of actual architecture of the Northern Dynasties. Architecture iconography includes cultural exchanges among several ethnic groups and contents of funeral rituals, so it's significant to study on it.

This thesis classifies the sarcophagi, which i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roof structure and theory of architectural space. Therefore, they were considered as new funeral sarcophagi combining Northern Xianbei custom of preferring stone coffin and architectural style of Northern Wei stone ancestral temple. It was possible due to the changes of funeral rituals at a burial chamber, professional roles of master craftsman, and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ies during the Northern Dynasties. In late Northern Dynasties, Sogdian ethnic group of the Western Asia used the house-shaped sarcophagi. Most people of the Western Asia believed Zoroastrianism and used cremation and Ossuaries as funeral methods. After they had settled in China, they made new funeral system. Central China culture, Zoroastrianism, and Buddhist culture were mutually combined and created new forms of architecture.

In the Northern Dynasties of China, there was innovative development for East Asia architectural history of the ancient times. The capital city of the Northern Dynasties formed the base of cities of Sui Dynasty and Tang Dynasty. The landscape of the Northern cities investigated by excavation of large-scale cave temple and record of Luogang Qielan Ji(洛陽伽藍記) reflects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ies of the ti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change with various cultures and changing aspect of funeral rituals from the structure and iconography of the coffins of the Northern Dynasties. This thesis reconsiders the perspective that they were absorbed to Central China culture, and then draws dynamic phase of the times of the Northern Dynasties.